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박훈평

화순마루요양병원 한방6과

A Bibliographic Study on Wood-block Edition 『Donguibogam』 in Jeseon Dynasty during the 17th-18th Centuries

Hun-Pyeng Park

Korean medicine sixth department. Hwasun maru Geriatric hospital

『Donguibogam』 has been published several times in Japan and China since the first was published and established itself as representing the East Asian medicine in 17th Century. Also, modern far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major classic book of Korea medicine.

For these 『Donguibogam』 its contents, as well as several medical historians and bibliographers were early comment on versions. However, these prior studies did not confirm about the various editions of the publication time, especially for the initial wood-block edition estimate only.

Through this new study found the following facts.

First, Wood-block edition of two Jeollagamyong published until the mid-18th century to be confirmed by the 『Seungeongwonilgi』.

Second, the timing of the editions published later modified in Naeuiwon is confirmed by the 『Chakpan Catalog』 and the 『Seungeongwonilgi』.

Third, the person who keeps wood-block edition of Chonnamgamyong is the first empirical examples of the same edition.

Fourth, the edition is not published editions group that bypasses the Naeuiwon modified.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Donguibogam, wanpanbon, Chakpan Catalog, Jeollagamyong

I. 서론

『동의보감』이 許浚에 의해 광해 2년(1610)에 완성되어 광해 5년(1613)에 초간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의보감』은 초간 이후 국내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되어 당 시대 동아시아 의학을 대표하는 성과로서 자리매김하였고, 현대에까지 한의학의 대표적인 원전

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초판 완질본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¹⁾

이러한 『동의보감』에 대하여 그 내용 뿐 아니라 판본에 대해서도 여러 의사가들이 일찍이 언급하였다. 미키 사카에(三木 榮)가 처음으로 『동의보감』 판본을 정리한 이후로,²⁾ 김두중은 이를 수용하여 호남관찰영 전주장본과 영남관찰영 대구장본이라는 용어를 학계에 통용시키고, 갑술판본들이 1814년에 간행되었다는 증거로 순조 20년(1820)에 간행된 『의학입문』의 발문을 새롭게 제시하였다.³⁾ 김신근

접수 ▶ 2015년 05월 07일 수정 ▶ 2015년 05월 26일 채택 ▶ 2015년 05월 25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개천로 249 화순마루요양병원
Tel : 061-373-9100 E-mail : lillipute@hanmail.net

1) 보물로 지정되어있던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규장각 소장의 초간본 3권이 역사적 가치와 그 세계적 위상이 고려되어 최근 국보로 승격되었다.
2) 三木 榮. 『訂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思文閣. 1991:196. 초간활자본. 초간본을 복각한 전주판과 대구판. 순조 14년(1814)에 간행된 완영 중간본, 영영개간본. 고종 11년(1874)에 간행된 판본 등 여섯 종류로 구분했다. 고종 11년(1874)은 간기 상 갑술년으로 간행 연도를 잘못 추산하여 생긴 오류이다.
3)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66:323-324.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9:182-183에서 재인용.

은 『실록』 기사 등을 토대로, 김두종의 견해와 달리 영영갑술본의 간행시기를 1754년으로 주장하였고, 간기가 없는 판본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하였다.⁴⁾ 이외에 남산당 출판사에서는 영인본을 간행하면서 『甲戌嶺營改刊本』의 이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다.⁵⁾ 또한 곽애춘을 비롯한 중국내 학자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여러 판본과 내의원교정 후의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교감성과를 내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여러 판본의 간행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특히 초기 목판본에 대한 설명은 추정에 불과했다.

근래 국내 서지학계에서도 판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옥영정은 초간본을 정리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 완질본 외에도 현전하는 초간본 십여 종의 현황과 특징을 비교 조사한 바 있다.⁷⁾ 박경련은 내의원 교정 이후 판본의 간행 시기에 대해선 김두종과 김신근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어 특별한 점은 없겠으나, 내의원 교정 이전 판본인 송준호 소장본에 대해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일본 내 초간본과의 유사점을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안상우 등은 중국 내 조선 간행본 의서를 조사한 결과물을 내었다. 여기서 『동의보감』 판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재정리하여 논하고, 중국 내 간기가 없는 판본을 보고하였는데, 이견이 있어왔던 『己亥嶺營開刊本』의 저술시기에 대해 김두종의 주장을 논증하여 보완한 성과가 있다.⁹⁾

이상의 연구들로 『동의보감』 초간활자본과 18세기 후반 이후 목판본들은 그 간행시기와 내용적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졌지만, 그 사이에 간행된 판본에 대해서는 실증 자료의 미비와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추정 외에는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논자는 본고를 통하여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먼저 그동안 조사되지 않은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분석하여 이 시기 목판본 간행에 대해 개괄하였다. 또한 책판목록 등을 비롯

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기존 연구들의 미비점을 보충하고, 개인 소장의 판본 실물에 대한 조사와 선행 연구에서 간행 연도 미상으로 남겨진 판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판본의 특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II. 본론

1. 문헌기록 고찰

1) 『승정원일기』¹⁰⁾ 記事 분석

각 기사별로 먼저 원문 번역문을 신고, 해당 원문은 각주로 하였으며, 기사별로 고찰을 하였다.

(1) 인조 26년(1648) 10월 14일 기사

① 전남(全南)도에 있는 『소학언해』, 『공자통기』, 『소학』, 『십구사략』, 『삼운통고』, 『동의보감』, 『의학입문』 등의 책을 각각 서너 건씩 찍어 보내도록 하라.¹¹⁾

② 侍講院에서 당시 전남감영에 있던 『동의보감』 책판으로 책을 찍어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같은 날짜의 『효종동궁일기』 기사에서도 발견된다.¹²⁾ 여기서 전남도는 지금의 전라도와 동일하며, 羅州가 정치적인 이유로 강등되었던 17세기에 全州와 南原에서 첫 글자를 따와서 붙였던 이름이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仁祖 연간으로 추정되나,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 전라도 전주 책판본의 존재가 이 시기에 확인된다.

4) 김신근. op. cit. p. 182-183

5) 편집부 편. 『원본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66. 뒤표지 圖4

6) 郭藹春 等. 『東醫寶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7) 옥영정. 「동의보감 초간본과 한글본 동의보감 연구」. 장서각. 2010;24:7-37.

8) 박경련. 「동의보감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간행에 대한 고찰」. 의사학. 2000;9(2):141-162.

9) 안상우 외. 『증보판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9:19-64.

10) 본고에서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에서 원문을 검색했다. 원문과 번역문의 밑줄은 논자가 강조한 것이다.

11) “全南所在小學診解, 孔子通記, 小學, 十九史略, 三韻通考, 東醫寶鑑, 醫學入門等書, 各數三件, 亦爲從容印送.”

12) 이 기사는 조선 간본 『의학입문』 간행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김남윤. 『역주 효종동궁일기 2』. 서울:민속원. 2008:151.

(2) 숙종 18년(1692) 10월 13일 기사

① 인견(引見) 때에 『동의보감』 판본을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분부하여 다시 개간(開刊)하도록 왕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렸다.¹³⁾

② 숙종(肅宗)이 전라감사에게 분부하여, 『동의보감』을 다시 개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更”을 통해 이전 목판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개간(開刊)이란 용어가 처음 간행이 아니어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 숙종 37년(1711) 2월 18일 기사

① 호남(湖南)에서 개간(改刊)한 『동의보감』 스무 권을 인출하여 위로 올려 보내는 일은 일찍이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인출되어서 진상(進上) 두 건, 세자궁(世子宮) 공상(供上) 한 건을 봉진(封進)하고 - 하략 -¹⁴⁾

② 호남관찰영에서 개간한 『동의보감』이 처음 인출되어 20권을 진상하는 내용이다. 일찍이 계하가 있었는데, 이제야 나왔다는 대목에서 숙종 18년 하교의 결과물이 이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하교로 부터 20여년의 차이가 있는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의보감』은 완질이 25책에 이르는 巨帙이다. 이를 刻手로 하여금 책판에 새기게 하고, 찍을 종이를 마련하게 함은 상당한 물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1820년에 간행된 『醫學入門 戊寅內局重校本』을 예로 들어 보면, 발문을 통해 이 책이 순조 14년(1814)에 나온 『甲戌完營重刊本』과 동일한 하교로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조 14년에 간행했지만, 하교의 시점은 더 일렀을 것이다. 간기의 연도인 무인년(순조 18)년에 책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면, 최종 간행은 두해가 더 걸렸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교가 있는 뒤로 최소 6년 이상이 걸렸다는 말이다. 즉 하교가 있다고 가까운 시일에 바로 책이 간행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改刊”이란 용어이다.

숙종 18년의 하교에서 “開刊”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동일 판본이라면 두 용어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동의보감』 판본 중에 『己亥嶺營開刊本』, 『甲戌嶺營改刊本』에서 간기에 동일하게 “開刊”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4) 영조 29년(1753) 9월 23일 기사

① 재로(在魯)가 말하기를 『동의보감』은 가장 긴요한 책이며, 또한 매번 능행(勅行)을 대할 때마다 찍어 보내는 건이 거듭되어 중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호남감영(湖南監營)에 있는 판본은 옛 판이 이지러져 못쓰게 되었기에, 인쇄본에 판을 덧붙여 개간(改刊)하도록 하였는데, 외방(外方) 각수(刻手)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여 비슷한 자획으로 인하여 잘못 판각한 경우가 많아서, 한 장 안에 잘못된 글자가 열을 헤아릴 뿐 아니라, 또한 고급(古今)에 없던 글자가 많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니, 이를 중국에 보낸다면 반드시 중국의 비웃음꺼리로 남겨질 것입니다. - 중략 - 반드시 옛 판을 삭거(削去)하고 즉시로 개간(改刊)하자는 뜻을 말하였는데, - 중략 -¹⁵⁾

재로(在魯)가 말하기를 『增補萬病回春』 또한 의서에서 긴요한 책이라 예전에 주자(鑄字)로 얼마간을 인출하였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영남에서 개간(嶺南開刊)하도록 한 『동의보감』의 예처럼, 필사하여 교정한 뒤에 아래로 내려 보내 개간(開刊)한 후에 - 하략 -¹⁶⁾

② 김재로가 『동의보감』을 새롭게 영남(嶺南 경상감영)에서 개간하자면서, 기존 판본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실록』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 기존 연구자들에게도 주목받았던 내용이다. 본 내용을 통해 전라감영 목판본은 두 가지임이 다시 확인된다.¹⁷⁾ 또한 1711년 개간본은 오자가 많은 특징이 있고, 기존 판본을 번각한 판본이라는 사실, 1690년대에서 1711년 사이에 『동의보감』이 인출되지 못했음도 알 수 있다. 그 밖에 내의원 교정본이 기존

13) “引見時, 東醫寶鑑板本, 分付全羅監司, 更爲開刊事, 榻前下教”
 14) “湖南改刊東醫寶鑑, 二十件印出上送事, 曾已啓下矣. 今始印來, 進上二件, 世子宮供上一件封進, 其餘十七件, 院上之外, 分給三廳諸醫之意, 敢啓. 傳曰, 知道.”
 15) “在魯曰, 東醫寶鑑, 最是緊要之書, 且每當勅行, 印送累件, 遍於中國矣. 板本在於湖南監營, 而舊板剝缺, 以印本付板改刊, 而外方刻手, 不解文字, 因字畫之近似, 而誤刊者無數. 一張之內, 誤字不啻十數, 亦多有古今所無之字, 不可解見. 以此送于中國, 則必貽中國之譏笑. 故今方伯下去時, 臣以自內局當改寫以送, 必須削去舊板, 即速改刊之意言之, 則下去後, 果已措置物力, 通報內局. 而前都提調欲陳達, 而未及云, 令戶曹進排紙筆墨, 分授寫字官寫出, 而本院醫官, 十分校準下送, 使之開刊後, 進上院上之件, 亦爲參酌印送, 何如? 上曰, 依爲之.”
 16) “在魯曰, 增補萬病回春, 亦醫書之緊要者, 而昔年以鑄字, 印出若干件, 即今餘存絕少云. 此則令嶺南開刊, 而一依東醫寶鑑例, 寫出校準, 下送開刊後, 進上及院上件印送.”
 17) 『실록』의 해당 내용은 『승정원일기』와 비교하면 상당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실록』 영조 29년 9월 23일 기사 “內局入侍, 命大臣, 備堂同入, 王

판의 번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자체임도 확인된다.

(5) 영조 34년(1758) 12월 17일 기사

① 태원(泰遠)이 말하기를 『입문』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호영(湖營 충청감영)에만 판본이 하나 있었는데,¹⁸⁾ 지금은 닳아서 간행할 수 없게 되어 『입문』이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상로(尙魯)가 말하기를 개간(改刊)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상로(尙魯)가 말하기를 『동의보감』을 영영(嶺營)에서 간행하도록 하는 것 또한 좋을듯합니다. 임금께서 명하여 글로 전교(傳敎)하기를 『의학입문』, 『정전(正傳)』은 호영(湖營)으로 다시 정간(精刊)하도록 하고, 『동의보감』 판본을 영영(嶺營)에서 다시 간행한 후에 진상(進上)하고, 또한 내국(內局)에도 보내도록 하라.¹⁹⁾

② 『의학입문』 판본이 훼손되어 책을 찍지 못하므로, 개간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동의보감』의 영영간행 또한 그러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영조 29년의 기사에서 간행하기로 했던 영영간본이 이 시기까지도 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간행되었다면 『동의보감』 책판을 간행 후에 진상하라는 이 기사의 뒷내용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신근이 『갑술영영개간본』이 1814년이 아닌 1754년에 간행되었다고 한 주장²⁰⁾은 명백한 오류이다.

(6) 정조 8년(1784) 11월 8일 기사

① 東醫寶鑑兩南各六件, 星火爲之.

② 영영개간이 드디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책판이 있어야 이러한 하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간행되어 진상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므로 전라감영에서의 계속 간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여기서 판본인 영영간본은 현존본의 간기를 볼 때 갑술과 기해 둘 중 하나인

데, 갑술은 1754년 아니면 1814년이라 시기가 맞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고, 기해년인 정조 3년(1779)²¹⁾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소결

① 『승정원일기』 기사를 통해 초간활자본 이후로 전라감영에서 간행된 목판본 두 종이 확인된다. 『승정원일기』 기사 속의 명칭으로 이름 붙여보면, 인조 26년(1648) 이전에 초간 되어진 『全南觀察營刊本』과 숙종 37년(1711)에 간행된 『湖南觀察營改刊本』이다.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전라감영에서만 『동의보감』이 간행되었음은 金在魯와 金尙魯의 말을 통해 확인된다.

② 기해와 갑술이라는 간기가 남아있는 영영개간본의 간행시기를 정조 3년(1779)과 순조 14년(1814)으로 확정할 수 있다. 영조 34년(1758)까지 영영에는 간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후의 기해년과 갑술년을 추산해야 한다. 그런데 정조 8년(1784) 이전에 영영개간이 한 차례 이루어져야 한다.

2) 『官刻 訂正東醫寶鑑』

『동의보감』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판본으로 간기로서 경종 4년(1724)에 초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승정원일기』 기사 분석을 통해 이 시기에는 내의원 교정을 거치기 이전의 판본만 존재하였음을 알았다. 따라서 이 일본판의 저본은 초간본, 『전남관찰영간본』과 『호남관찰영개간본』 중 하나일 것이다.

박경련에 따르면²²⁾ 이 책의 발문에서 글자가 뭉개지거나, 글자에 오류가 있어 문맥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였고, 그 내용에는 조선본 초간본에 없는 오자들이 발견된다. 앞서 『승정원일기』의 김재로의 1711년 간본에 대한 묘사와 발문에서 말하는 표현이 상당히 유사한 점, 간행시

世子侍坐. 領議政金在魯請『東醫寶鑑』及『增補萬病回春』, 令嶺營刊板, 允之. “내의원에서 입시하였는데, 명하여 대신과 備局堂上也 함께 들어와 왕세자를 시위하여 앉게 하였다. 영의정 金在魯가 『동의보감』과 『증보만병회춘』을 嶺營으로 하여금 刊板하게 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18) 실제로 『의학입문』 충청감영 간본은 이 기사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 1648년 10월 14일 기사를 비롯해서, 책판목록을 통해서도 전라감영 간본만이 확인된다. 특히 영조 6년(1730)의 『冊板置簿冊』에도 전라감영 책판이 기록되어 있어, 동 기사의 내용은 탈초(脫草) 과정 중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오류이든지, 원문 자체의 오류로 잘못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湖營”과 “湖南”은 초서로 쓰면 유사해보이므로,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 기사에 나온 『의학정전』의 경우도 충청감영 간본은 알려진 바 없고, 경상감영과 전라감영 간본이 확인된다.

19) “泰遠曰, 入門, 我國只有湖營一板, 而今則刊不能印, 入門將絕矣. 尙魯曰, 使之改刊則好矣. 尙魯曰, 寶鑑使嶺營刊行, 亦似好矣. 上命書傳敎曰, 醫學入門, 正傳, 令湖營更爲精刊, 醫鑑板, 令嶺營亦爲刊行後進上, 亦爲上送內局.”

20) 김신근. op. cit. p. 182-183

21)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본고의 책판 목록 조사 등의 증거로도 1779년 간행이 입증된다.

22) 박경련. op.cit. p. 150

기를 고려하면, 이 일본판의 저본은 1711년의 『호남관찰영 개간본』으로 추정된다.

3) 책판목록

책판목록이 완성된 연도 순서에 따라²³⁾ 수록된 『동의보감』 책판을 조사하였다. 본문 내용 중에 전주와 대구가 나오는 경우에 책판이 없다면 내용 없음으로 기록했다.

(1) 『書冊置簿』²⁴⁾

임진왜란 이후의 책판 목록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쓰였다. 李聘命이 작성한 목록으로 숙종 6년(1680)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전주. 白紙, 三十九卷 十五張

(2) 『慶尙道冊板』²⁵⁾

편자 미상의 목록으로 영조 6년(1730)에 작성된 목록이다.

- 경상감영과 대구부.²⁶⁾ 내용 없음

(3) 『冊板置簿冊』²⁷⁾

편자 미상의 영조 16년경(1740)의 목록이다.

- 전주. 白紙, 三十九卷 十五丈
- 경상감영. 내용 없음

(4) 『三南冊板』²⁸⁾

편자 미상의 영조 19년(1743)에 작성된 목록이다.

- 전주. 二十五卷, 四十二束
- 경상감영 대구. 내용 없음.

(5) 『諸道冊板錄』²⁹⁾

영조 25년경(1750)에 저술된 편자 미상의 목록이다.

- 전라감영. 四十二束
- 경상감영. 내용 없음

(6) 『完營冊版目錄』³⁰⁾

편자 미상의 영조 35년(1759)에 작성된 목록이다. 표제는 완영으로 되어있지만 三南 전체의 책판을 기록하고 있다.

- 전주. 白紙, 四十一束
- 경상도 영상(營上 감영). 내용 없음.

(7) 『嶠南冊錄』³¹⁾

편자 미상의 경상도 책판 목록으로 정조 7년(1783) 이후에 완성된 목록이다.

- 慶尙營(경상 감영). 白紙. 四十一束十七張

(8) 『五車書錄』³²⁾

『完營冊版目錄』을 저본으로 하여 정조 15년(1791) 이후에 재조사한 목록으로 편자 미상이다.

- 전라감영. 白紙, 四十二束, 客舍 不列秩

(9) 『鏤板考』³³⁾

徐有渠 등이 왕명을 받아 작성한 목록으로 정조 20년(1796)에 완성되었다.

- 湖南觀察營藏, 刊, 印紙三十八葉
- 嶺南觀察營藏, 刊, 印紙四十九葉七十張

“완(刊)”은 책판이 닳아 없어졌음을 설명하는 단어이다. 이 조사 이전에 전주와 대구에 책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 윤병태. 『한국 도서 목록의 사적연구』. 서울:한국출판연구소. 1992:39-42.

24) 정형우, 윤병태. 『한국책판목록총감』.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114에서 재인용

25)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http:// www.nl.go.kr](http://www.nl.go.kr))에서 원문을 활용했다.

26) 경상감영이 대구부에 있지만, 이 목록은 감영 장관과 대구부 장관이 구분되어있다.

27)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원문검색을 활용했다. <http://library.korea.ac.kr/>

28)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http:// www.nl.go.kr](http://www.nl.go.kr))에서 원문을 활용했다.

29) 정형우, 윤병태. op. cit. 114에서 재인용

30)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http:// www.nl.go.kr](http://www.nl.go.kr))에서 원문을 활용했다.

31) 정형우, 윤병태. op. cit. 114에서 재인용

32) 정형우, 윤병태. op. cit. 114에서 재인용

3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원문을 활용했다.

(10) 『各道冊板目錄』³⁴⁾

편자 미상의 현종 6년(1840)에 작성된 목록이다.

전라도 전주. 二十五冊, 容入紙四十六卷

경상도 대구. 二十五冊, 容入紙四十三卷十七張

(11) 소결

기존의 책판목록 연구는 정조 말년의 『누판고』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책판목록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김두종이 미키 사카에의 주장을 수용하여, 호남관찰영 전주장본과 영남관찰영 대구장본으로 명명한³⁵⁾ 잘못된 명칭은 근래까지도 별 다른 검증 없이 통용되고 있다.³⁶⁾ 현재 알려진 당 시대의 모든 책판 목록 조사를 통하여 그간의 오류를 바로잡고 『승정원일기』를 통해 얻은 고찰들을 재검증할 수 있었다.

① 책판 목록 조사를 통하여 『동의보감』의 책판이 숙종 6년(1680) 이전에 전라도 전주에 있었음이 재확인된다. 이는 『승정원일기』 기사와도 부합하며 『전남관찰영개간본』이 이에 해당한다.

② 경상도 대구 책판 최초의 기록은 정조 7년(1783)이다. 이는 경상감영에서는 영조 35년에서 정조 7년 사이에 처음으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는 말이다. 이는 『승정원일기』에서 영영개간본이 처음 확인되는 시기인 정조 8년보다 이르다. 정조 20년에 가면 이 최초의 판본은 책판이 많아서 간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③ 김두종이 호남관찰영 전주장본과 영남관찰영 대구장본으로 명명한 판본은 앞서 『승정원일기』 기사 분석 등과 함께 보면, 전자는 숙종 37년(1711)에 간행된 『호남관찰영개간본』이고, 후자는 정조 3년(1779)에 간행된 『기해영영개간본』임을 알 수 있다. 김두종 또한 후자가 『기해영영개간본』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는 바는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없었다.³⁷⁾

④ 『오거서록』의 기록에 의해 『호남관찰영개간본』의 책

판이 1791년 이전에 손상되었음이 확인된다. 앞서 『승정원일기』 1784년 11월 8일의 기사에서 간행에 대한 하교 기록이 있으므로 두 시기 사이에 훼손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물론 이 기사에서 실제 간행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

2. 개인 소장본 고찰

1) 『全南觀察營刊本』

(1) 소장본(3564번)³⁸⁾의 간행연도 고증

① 본 소장본의 뒤표지는 공문서를 배접지로 활용해 만들어졌는데, “康熙元年正月.”과 “鎭安縣監” 등의 기록이 선명하다. 강희 원년은 조선 顯宗 3년(1662)이고, 진안현은 현재의 전라북도 진안군 일대이다. 따라서 이 소장본은 전라감영 판본의 조건에 부합하며, 1660년대 이후에 간행된 『전남관찰영개간본』의 후쇄본으로 보인다. 『호남관찰영개간본』은 1711년에 간행되므로, 50년이 지난 고문서를 배접지로 활용해 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개연성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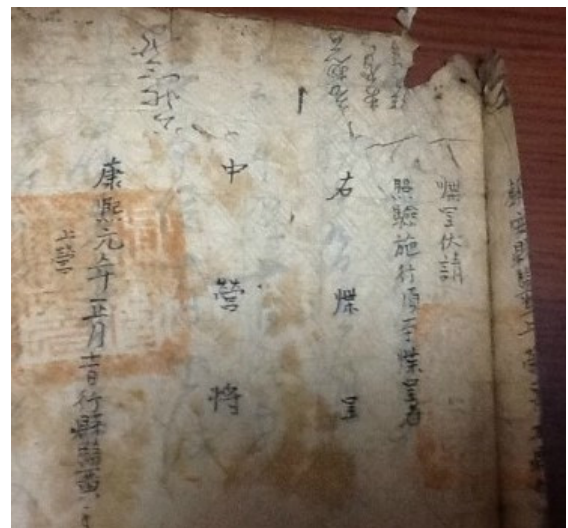


그림 1. 뒤표지의 背接紙.

② 본 소장본은 글자 자획과 내용면에 있어서 『전남관찰

3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원문을 활용했다.

35) 김두종. op. cit. p.323-324.

36) 김기욱 외, 『한의학통사』, 서울:대성의학사, 2006:306. 김중권, 채석용 외, 『선본해제 15』, 서울:국립중앙도서관, 2013:5, 11.

37) 김두종. op. cit. p.323

38) 개인문고 등록번호. 이하 논고에서 소장본 옆의 번호는 모두 동일하게 등록번호를 의미한다.

영간본』 간본으로 보인다. 내의원 교정을 거친 판본에서 보이지 않는 오자가 있지만, 기존 『승정원일기』에서 『호남관찰영개간본』의 특징으로 논했던 많은 오자라 할 수준은 아니다. 또한 초간본의 글자체와 매우 유사한 자형을 지닌 간본이다. 이는 초간본을 저본으로 한 번각본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앞서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9월 23일 기사를 통해 내의원교정본은 초간본과는 다른 글자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3) 초간본과의 비교”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논하였다.

③ 본 소장본은 책 크기와 광곽 크기 등 형태 서지에 있어서 초간본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2) 서지사항”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논하였다.

④ 본 소장본은 기존에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판본이다. 이는 그만큼 현존본이 희소하다는 증거이다.

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소장본을 『전남관찰영간본』으로 확증할 수 있다.³⁹⁾ 이는 첫 실물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다.⁴⁰⁾ 이를 통해 이 판본과 동일 판본은 『전남관찰영간본』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판본이 다르면서 내의원 교정을 거치지 않은 또 다른 판본은 『호남관찰영개간본』으로 볼 수 있다.

(2) 서지사항

雜病篇 卷之六 낙질 1책 목판본이다. 四周雙邊으로 半葉匡郭 24.8×16.4 cm, 有界, 10행 21자, 注雙行, 판심은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와 上下內向一葉花紋魚尾가 혼재되어있다. (그림 2 참조)⁴¹⁾ 자획 면에서 있어 본문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한다.

현존하는 초간 목활자본의 서지 사항은 옥영정이 정리한 바 있다.⁴²⁾ 책 크기에 있어서는 규장각 소장본은 36.7×22 cm⁴³⁾이고, 화봉박물관 소장본은 35.5×21.1 cm인데, 전자가 어람용인 史庫 내사본인 점을 감안하면,⁴⁴⁾ 원래의 책 크기는 보통 세로가 35에서 36 cm, 가로가 21에서 22 cm로 보인다. 본 소장본의 책 크기는 35.5×21.9 cm이다. 따라서 책 크기 면에서 본 소장본은 초간본과 유사하다.⁴⁵⁾ 그러나 반곽의 크기는 초간본보다 다소 작다.



그림 2. 어미(魚尾).

본문 첫 면 하단에 붉은 장서인 두 개가 있다.(그림 3

39) 박현규. 「동의보감의 중국전래시기와 활용에 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2014;44: 365-387. 박현규는 현종 2년에 중국으로 처음 전래되었음을 밝혔다. 이 때의 판본은 본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40) 현존하는 추정본들을 보면 이 판본은 간기가 없고, 서발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사기(內賜記)같은 별도의 기록이 없으면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41) 어미가 둘 이상이므로, 책의 여러 내용이 동 시대에 간행된 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호남관찰영개간본』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동일 판본 내에서 다양한 어미가 나타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 논자는 『호남관찰영개간본』의 같은 내용을 수록한 서로 다른 책을 비교해 보았는데, 같은 페이지에는 같은 어미가 등장하여 초간부터 여러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논자가 소장 중인 18세기 초기 『의학입문』목판본 또한 다양한 어미가 혼재되어있다.
 42) 옥영정. op. cit. p.21-1. 장서각본. 완질. 사주쌍변. 반엽광곽 26.5×16.6 cm. 유계. 10행 21자. 주쌍행.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 2. 국중본. 완질. 반엽광곽 27.6×16.6 cm. 3. 규장각본(규1933). 24책. 반엽광곽 26.6×16.5 cm. 규장각본(규3553). 17책. 26.6×16.5 cm. 4. 성보박물관본. 22책. 반엽광곽 26.5×16.5 cm. 5. 화봉박물관본. 1책. 반엽광곽 26.9×16.2 cm. 1책. 반엽광곽 26.4×16.3 cm. 책 크기 다소 작은 30.45×19.3 cm. 1책. 반엽광곽 26.4×16.4 cm. 책 크기 35.5×21.1 cm. 6. 허준박물관 소장본. 4책. 7. 영남대소장본. 1책. 반엽광곽 26.6×16.5 cm. 8. 청주고인쇄박물관본. 1책. 반엽광곽 26.6×16.5 cm. 9. 개인 소장본. 2책.
 4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에서 해당 도서의 해제를 활용했다.
 44) 어람용이나 사교본의 경우 다른 용도에 비해 질이 더 좋은 종이에 인쇄된다. 책 크기 또한 달라질 수 있다.
 45) 박경련. op.cit. p. 142. 내의원 교정을 거친 판본들은 높이가 규장각 소장본에 비해 2-2.5 cm 작다.

참조) 전체적으로 인쇄가 선명하며 번짐도 거의 없다. 표제는 “東醫寶鑑 雜病卷之六”이고 낙장은 없다.



그림 3. 본문 첫 면(1a)의 장서인(46).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중국 내 조선간본 의서 조사 과정에서 남경중의약대학도서관에서 발견된 판본은 완질본인데 24책으로 이루어져있고, 목록 두 권이 합본되었다.⁴⁷⁾ 연구원 발간 도서에 수록된 해제를 보면 半葉匡郭 크기가 24.8×17.3 cm으로 되어있는데, 앞의 3564번 소장본과 유사하다. 또한 같은 책에 이 판본의 사진 4장(그림 25, 26)이 실려 있는데, 이를 해당 초간본의 내용⁴⁸⁾과 비교하면, 초간본의 자획과 일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하며 인쇄가 매우 선명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전남관찰영간본』의 특징과 같아 동일 판본으로 확인된다.⁴⁹⁾ 해당 소장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전남관찰영간본』은 초간본처럼 별도의 간기가 목록 뒤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장본은 비록 초간본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흔치 않은 『전남관찰영간본』이란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⁵⁰⁾

초간본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완질을 포함한 주요한 선본들은 사고 소장본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국보로 승격된 3건 모두가 사고 소장본이다. 일반에게 내사된 경우는 몇 책의 낙질로만 현재 전할 뿐이다. 1711년에 전라감영에서 개간이 이루어지는 까닭도 당시에 이미 그 이전 판본이 희소해졌던 까닭에 기인하고 있다. 『전남관찰영간본』의 경우 기존의 소장본(초간본)이 있는 까닭으로, 사고에 소장할 필요가 없었기에 초간본보다 완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다.⁵¹⁾ 중국내에 현존하는 『전남관찰영간본』의 존재는 중국과의 사행 교류를 통해 전해진 『동의보감』이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에도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3) 초간본과의 비교

실물조사는 완질이 아닌 낙질 1책에 불과하지만 유형을 발견하고 차이점들의 특징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① 복잡한 자형의 글자를 단순한 형태로 바꾸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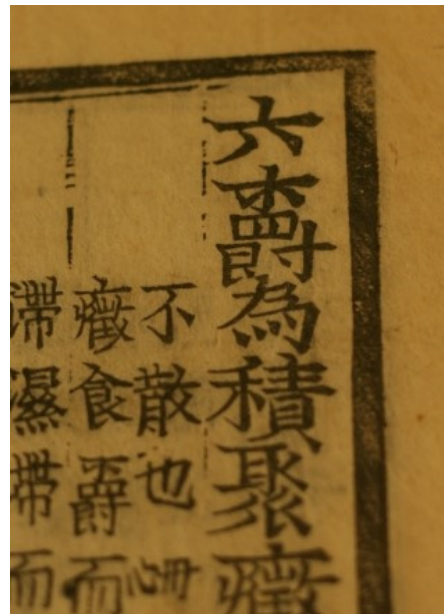


그림 4. 본문 3a.

46) 그림에서 a, b는 해당 장의 앞면과 뒷면을 의미한다.

47) 안상우 외. op. cit. p.42.

4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초간본과 비교하였다.

49) 안상우 외. op. cit. p. 44. 그림 26의 총목(總目) 사진을 보면 『호남관찰영개간본(湖南觀察營改刊本)』으로 추정되는 5503번에 실린 총목(總目)과 어미(魚尾) 등이 다르다. 이는 남경중의약대학도서관 소장본이 『전남관찰영간본』과 동일한 판본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50) 안상우 외. op. cit. p. 43-44. 원 소장자의 기록을 보면 완질은 아니다. 현재의 완질 상태는 후대에 보충된 결과로 보인다.

51) 율해 초에 경남 진주에서 이 판본으로 추정되는 완질이 개인 소장자에게 거래된 적이 있다. 실물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하게 이 판본인지 『호남관찰영개간본』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둘 중 어느 판본이더라도 완질이라면 희소한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글자 “鬱”을 바꾼 사례를 들 수 있다. 한 면에 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글자의 변환은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완질본에서는 더 많은 글자에서 이런 종류의 변환이 이루어졌을 추정해볼 수 있다.

② 일부 오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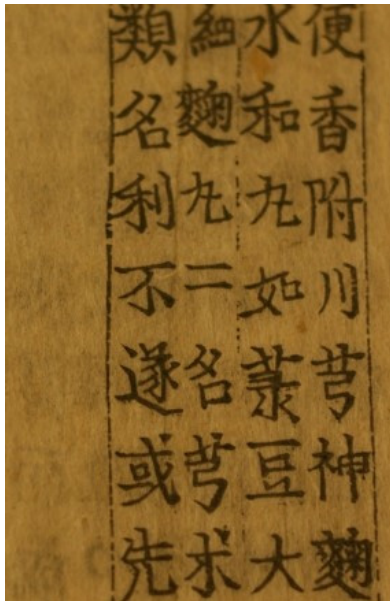


그림 5. 본문 3b.

이 오자는 후대 내의원 교정 이후 판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문 3b에서 “一”을 “二”로 오기되었다.

③ 독특한 기호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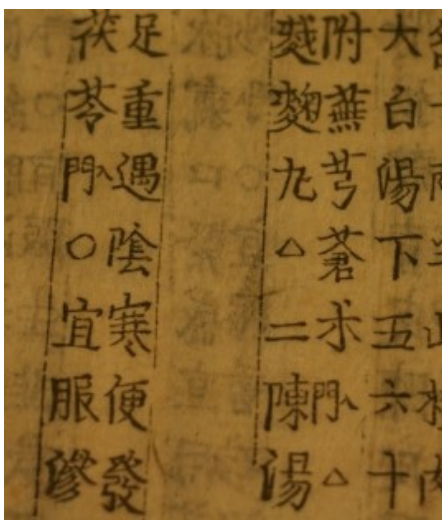


그림 6. 본문 4a.

문장의 시작에 사용되는 “○” 기호 대신 “△” 기호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초간본과 후대 다른 판본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의 사례는 본문 전체에 걸쳐 “○” 기호와 함께 사용된다.

④ 초간본의 자획이 상당수 남아있어 번각본의 특징을 보인다. 후대 내의원 교정을 거친 판본과는 이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 『湖南觀察營改刊本』

(1) 서지사항

① 2503번 소장본



그림 7. 어미(魚尾).

雜病篇 卷之三 낙질 1책 목판본으로, 四周雙邊이며 半葉匡郭 23.9×16.2 cm, 有界, 10행 21자, 注雙行, 판심은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와 上下內向一葉花紋魚尾,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등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있다.(그림 7 참조) 또한 부분의 자획이 매우 다르다. 책 크기는 35.2×21.3 cm로서 초간본과 유사하다. 반곽의 크기는 『전남관찰영간본』보다도 더 작다.

표제는 “東醫寶鑑 三”이며 본문 첫 면 하단에 김정 장서인이 하나 있다. 본문 중의 낙장이 한 장 있어 정서된 필사가 대신 끼워져 있고, 外形篇 卷之三 끝장이 본문 중에 잘못 삽입되어있다. 전체적으로 인쇄상태가 좋지 못하고 번

김 현상도 자주 발견된다.

② 5503-5505번 소장본

낙질 3책 목판본으로 內景篇 卷之一, 雜病篇 卷之三, 雜病篇 卷之八과 九의 합책이어서 4책 분량이다. 앞 2503번 소장본과 반곽 크기가 동일한데, 책 크기에 있어 32.1×21로 다소 작다. 처음부터 작았는지, 후대의 체책 과정 중에 잘라졌는지는 불분명하다. 5504번과 앞 2503번 소장본은 같은 雜病篇 卷之三 내용으로 광곽 크기와 자획 등을 비교하면 동일한 판본인데, 5504번의 인쇄 상태가 2503번 소장본보다 선명하여 더 이른 시기에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책 모두 “雲川文庫”라는 동일한 장서인이 있고 낙장은 없다.⁵²⁾

박경련의 연구에서 내의원 교정 이전 판본으로 추정된 송준호 소장본이 있다.⁵³⁾ 이 판본 실물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박의 연구에 실린 내경편 집례 분석에 나타난 오자가 5503번 소장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므로 같은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송준호 소장본은 1711년에 간행된 『호남관찰영개간본』임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일본에서 1724년에 간행한 『관각 정정동의보감』이 『호남관찰영개간본』을 저본으로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정에 부합하며, 또한 박경련이 송준호 소장본과 『관각 정정동의보감』의 관련성에 대해 논했던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③ 5507번 소장본

낙질 1책 목판본으로 湯液篇 卷之三이다. 책 크기는 30.7×20.7 cm로서, 논자의 소장본 중 가장 작다.

박경련은 송준호 소장본에서 탕액편 권지삼 말미의 “東醫寶鑑 目錄 終”이란 기록을 근거로 본래 25책이 아닌 24책 본일 것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⁵⁴⁾ 동일 판본인 5507번 소장본 말미에도 이 내용이 있다. 원래 “東醫寶鑑 目錄 終”의 기록은 초간본이나 다른 판본들을 보면, 내경편 권지일의 총목 뒤에 나온다. 그런데 앞 5503번 총목의 끝에는 그 기록이 없다.(그림 8 참조)

총목 내용 중에 분명 침구편도 나오며, 실물 확인은 못했

지만 동일한 판본에서 침구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⁵⁵⁾ 따라서 이 또한 이 판본에서 허다한 오류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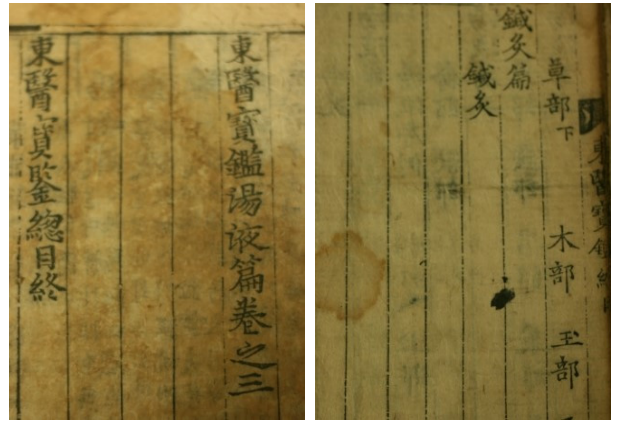


그림 8. 총목 3b(5507번)와 34b(5503번).

(2) 초간본과의 비교

논자의 소장본은 5책 분량의 낙질에 불과하지만 유형을 발견하고 차이점을 발견하는 목적으로는 활용될 수 있다.

① 글자를 간자로 바꾼 경우가 종종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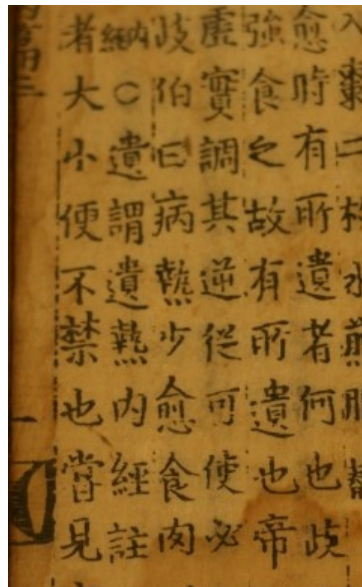


그림 9. 2503번 소장본의 본문 10a.

52) 원래는 같은 장서인이 찍힌 판본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논자가 매입할 당시에는 3책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53) 박경련. op.cit. p. 144-151.

54) 박경련. op.cit. p. 144.

55) 경남 밀양의 서적상 김동영씨가 거래했던 동일판본 낙질 21책 중에는 침구편도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503번 소장본의 본문 2a에서 “衣”를 “衾”로 바꾼 사례, 본문 10a에서 “從”을 간자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그림 9 참조) 이런 사례는 자주 보이는데, 다만 부분적으로만 변화될 뿐 본문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특이하다.

② 오자가 많다.

이 오자는 후대 내의원 교정 이후 판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2503번 소장본의 본문 3a에서 “一切”에서 “一”이 탈락되었다. 판각의 오류로 인하여 해당 글자를 “■”으로 처리하고 다시 판각한 사례도 보인다. 박경련의 연구에서도 내경편의 집례를 토대로 다수의 오자를 분석한 바 있다.⁵⁶⁾ 박은 이 오자들이 내의원 교정을 거친 후대 판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1724년에 일본에서 간행한 『관각 정정동의보감』의 오자와 유사한 점이 있음을 분석했다. 오자가 많았던 이 특성으로 인해, 이후 내의원 교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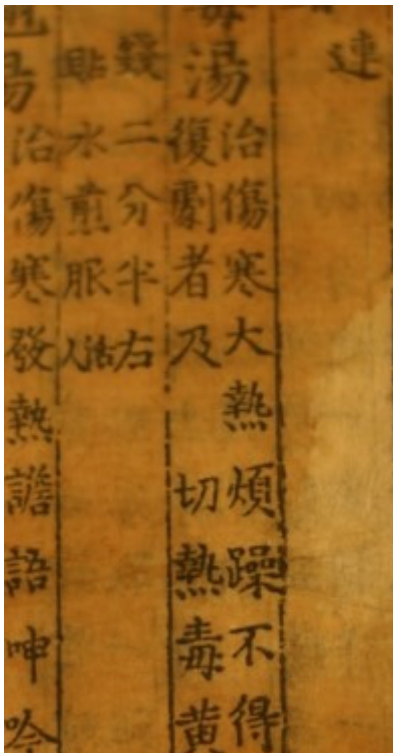


그림 10. 2503번 소장본의 본문 3a.

③ 板刻이 조잡하다.

여러 각수에 의한 작업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글자 자획의 차이가 분명하게 본문에서 드러난다. 2503번의 어미 뿐 아니라(그림 8 참조), 5503-5505, 5507번 어느 책을 보아도 어미와 판심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이는 박경련도 송준호 소장본 분석에서 지적한 바 있다.⁵⁷⁾ 이 다양한 판심과 어미에 대하여 박경련은 저본으로 삼은 목활자본이 다양하여 생긴 결과라 주장했다. 논자의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각수의 미숙함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판관이 아닌 목판본에서 다양한 판심과 어미가 등장하는 경우는 흔하며, 이러한 목판본이 복간본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앞서 『승정원일기』에서 김재로의 1711년 간본에 대한 묘사에서 외방 각수로서 책판을 판각하였다고 한 바 있다. 동일한 기사에서 다른 목활자본의 존재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 책판 목록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목활자의 경우는 활자라는 특성답게 한 책만을 조판하기 위해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박경련의 주장처럼 저본으로 다양한 목활자가 있었다면, 『동의보감』이 아닌 다른 책들(특히 의서⁵⁸⁾)에 대한 간인본도 광해군 시기를 벗어나, 이후에 다양하게 존재해야 옳다.

④ 초간본의 자획은 가끔 보인다.

그러나 『전남관찰영간본』에 비하자면, 번각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도수가 적다. 이는 초간본으로 번각하지 않고, 『전남관찰영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데다,⁵⁹⁾ 체계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까닭으로 추정된다.

(4) 소결

본 소장본 5책(2503, 5503-5505, 5507)은 『호남관찰영개간본』이다. 또한 박경련이 분석했던 송준호 소장본도 이 판본임이 확인된다. 송준호 소장본의 경우 목록(目錄) 뒤에 간기가 별도로 없다. 이를 통해 『전남관찰영간본』에 이어 『호남관찰영개간본』 또한 간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간기가 별도로 없는 점은 내의원 교정 이전 판본만의 특징이라 하

56) 박경련. op.cit. p. 145.

57) 박경련. op.cit. p. 143-145.

58) 훈련도감활자에서 내의원자체활자라 불리는 작은 크기의 활자가 만들어진 이유도 의서(醫書)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59)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9월 23일 기사

겠다. 원래 총목 뒤에 있던 “東醫寶鑑 目錄 終” 기록이 탕액편 말미로 옮겨진 점도 이 판본만의 특징이다.

본고에서 다룬 『동의보감』 조선 간행 판본 7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동의보감』 조선 간행 판본

이름	간행	특징
초간본	1613	목활자본. 간기 없음
전남관찰영간본	1648년以前	첫 목판본. 자획이 초간본과 유사. 간기 無.
호남관찰영개간본	1711	목판본. 誤字 多. 간기 無. 어미와 판심 다양
기해영영개간본	1779	내의원 교정 후 첫 목판본. 간기 있음
갑술영영개간본	1814	목판본. 간기 있음.
갑술완영중간본	1814	목판본. 간기 있음.
갑술완영중간본의 번각본	19c 중후반	마지막 목판본. 간기가 갑술완영중간본과 동일. 誤字 多

개간본』이 1759년 이후의 갑술년인 순조 14년(1814)에 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개인 소장본 『전남관찰영간본』은 이 판본의 첫 실증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다.

소장본의 뒤표지는 당시의 공문서를 활용해 만들어졌는데, 이 공문서의 기록을 통해 1660년대에 간행된 후쇄본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판본과 동일 판본은 『전남관찰영간본』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판본이 다르면서 내의원 교정을 거치지 않은 판본은 『호남관찰영개간본』으로 보는 기준을 제시한다.

넷째, 간기가 없는 목판본은 내의원 교정 이전의 간행본이다.

이는 개인 소장 판본의 조사와 『호남관찰영개간본』인 송준호 소장본, 『전남관찰영간본』인 남경중의약대학 소장본에서 확인된다. 향후 국내에서도 간기 없는 판본들의 소장처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초간본과 내용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연구도 요구된다.

III. 결론

본자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동의보감』 초간본이 나온 이후 17-18세기에 나온 초기 목판본에 대해 개괄하고, 책판목록 등을 통해 이를 보충하였다. 또한 그 실물로서 개인 소장본과 선행 연구에서의 간행 연도 미상이었던 판본에 대하여 분석하여 판본을 고증하고 여러 특성을 논했다.

본자는 본고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첫째, 『승정원일기』 기사를 통하여 초간활자본 이후로 18세기 중엽까지 전라감영에서 간행된 목판본 두 종이 확인된다. 『승정원일기』 기사 속의 명칭으로 이름 붙여보면, 인조 26년(1648) 이전에 초간된 『전남관찰영간』과 숙종 37년(1711)에 간행된 『호남관찰영개간본』이다.

둘째, 『승정원일기』와 책판 목록 조사를 통하여 『기해영영개간본』 등 내의원 교정 이후 판본의 간행 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

책판목록에서 영조 35년(1759) 이전에는 『동의보감』의 책판이 전라도 전주에만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승정원일기』 기사와도 부합한다. 또한 이는 『기해영영개간본』이 1759년 이후의 기해년인 정조 3년(1779)에 간행되었고, 『갑술영영

참고문헌

1. 郭藹春 等. 『東醫寶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 김기욱 외. 『한의학통사』. 서울:대성의학사. 2006.
3. 김남윤. 『역주 효종동궁일기 2』. 서울:민속원. 2008.
4.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담구당. 1966.
5. 김신근. 『한의학서고』.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6. 김중권, 채석용 외. 『선본해제 15』. 서울:국립중앙도서관. 2013.
7. 三木 榮. 『訂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思文閣. 1991.
8. 서유구. 『누판고』. 서울:필사본. 1796.
9. 안상우 외. 『증보판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0. 윤병태. 『한국 도서 목록의 사적연구』. 서울:한국출판연구회. 1992.
11. 정형우, 윤병태. 『한국책판목록총감』.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2. 편자 미상. 『각도책판목록』. 서울:조선사편수회. 1941.
13. 편자 미상. 『경상도책판』. 간행처미상:간행연도미상.
14. 편자 미상. 『삼남책판』. 간행처미상:간행연도미상.

15. 편자 미상. 『완영책판목록』. 서울:조선사편수회. 1941.
16. 편집부 편. 『원본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66.
17. 허준. 『동의보감 전남관찰영간본』(3564). 전주:전라감영. 1662.
18. 허준. 『동의보감 호남관찰영개간본』(1481, 5503-5505, 5507). 전주:전라감영. 1711.
19. 박경련. 「동의보감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간행에 대한 고찰」. 의사학. 2000;9(2):141-162.
20. 박현규. 「동의보감의 중국전래시기와 활용에 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2014;44:365-387.
21. 옥영정. 「동의보감 초간본과 한글본 동의보감 연구」. 장서각. 2010;24:7-37.
22. 고려대학교도서관, 원문자료검색(<http://library.korea.ac.kr/>)
23.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2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